



EAI 여론브리핑 제12호 (2007. 4. 18)

EAI · CCGA · 중앙일보 공동(2006)

세계 17개국 대외인식조사발표(4) :



1. 이후 발표 일정

이번 발표는 지난 해 6-7월에 실시한 6개국 대외인식 데이터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여 11개국 추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차수	엠바고(GMT)	주제	비고
1차	3.14 01시	지구온난화	EU 27개국 지구온난화 정상회담 (3월 8일)
2차	3.22 01시	환경과 노동기준	10개국만 조사 참여
3차	4.05 01시	인종학살/다르푸르사태	(차후 발표)
4차	4.18 01시	미국의 착한 리더십	
5차	4.26 14시	세계화와 국제무역	세계은행 총회(4월 15일)
6차	미정	중국과 일본의 경쟁	
7차	미정	국제 핵연료 통제	
8차	미정	UN의 미래	
9차	미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조사대상국 : 17개국 국가 + 팔레스타인(17개국 조사방법)

- 최초 6개국 : 한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한국 및 6개국 조사결과는 중앙일보 2006년 12월 13일자에 발표, EAI 여론브리핑 2호와 7호에 소개
- 추가 조사국가 11개국+1 자치정부 : 러시아, 멕시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태국, 페루, 폴란드, 필리핀 + 팔레스타인

2. 한국 조사방법

- 기 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 후 원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 표 본 : 1,024명
- 표본추출 : 층화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개별 면접조사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
- 조사기간 : 2006. 6. 19-7. 7



주제1. 세계는 미국의 “착한 리더십” 바란다

-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이제 그만
- 국제문제에 해결에 리더십은 필요해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 이제 그만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 · 와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가 2006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세계에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얼마나 신뢰하는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15개국에서 5개국(필리핀 · 이스라엘 · 호주 · 폴란드 · 우크라이나)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수를 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미 EAI에서 2004년부터 실시해온 시카고외교협회(CCFR: CCGA의 전신)와 실시한 국제여론조사나 BBC · EAI · 매경이 매년 실시하는 국제현안모니터 조사결과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특히 남미(아르헨티나84% · 페루80%)와 부시행정부 들어와 사사건건 미국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프랑스(72%), 러시아(73%)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특히 높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반발해온 인도네시아(64%), 중국(59%), 태국(56%), 한국(53%), 인도(52%) 등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컸다.[그림1]

이러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원인진단이 있어왔다. 필자에 따라 ‘반미’에 대한 정의에는 커다란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1) 중동의 이슬람근본주의나 북한의 주체사상 등의 ‘반제국주의 · 민족주의’ 이념(anti-imperialism)과 결부되어 미국의 지배질서에 대한 전복과 저항을 꾀하는 이념으로서의 반미주의(anti-Americanism), (2)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critical attitudes) (3)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나 문화적 감성의 반감으로부터 비롯되는 ‘반미감정(anti-American sentiment)’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반미’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한국에서도 ‘좌파 이데올로기’로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등장한 ‘정서적 민족주의’의 산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Kim 1989; Shin 1996; Kim 2003, Lee and Jeong 2004).

그렇다면 현재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미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면밀한 개념규정과 지표를 통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반미는 이념이나 일시적 감정이라기보다는 미국 일방주의 정책과 물리력 위주의 외교행태에 대한 정책적 반대와 반감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한다.

우선, ‘국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이 어디건 미국이 세계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할 책임(responsibility)가 있는지’ 그 정당성(legitimacy) 여부를 물어본 결과 미국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동맹국들조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미국75% · 호주70% · 한국60%). 또한 ‘미국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5개국 13개국이 미국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권력행사에 비판적인 여론이 13개국 전체응답자의 무려 72%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48%, 필리핀은 31%만이 부정적으로 답해 대조적이었다.[그림2]

□ 국제문제에 해결에 미국 리더십은 필요해 : “착한 리더십” 요구

미국의 과도한 힘의 행사에 대한 비판이 미국의 국제 문제에 대한 개입과 리더십 발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뿌리깊은 반미의 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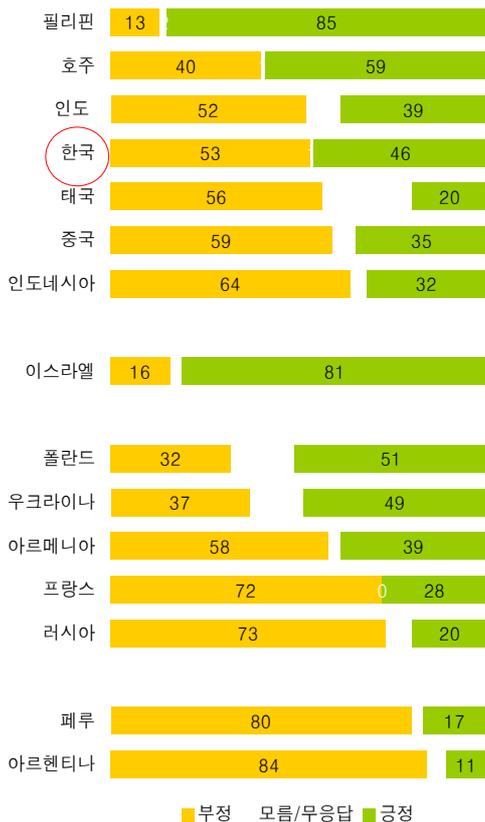


지 팔레스타인과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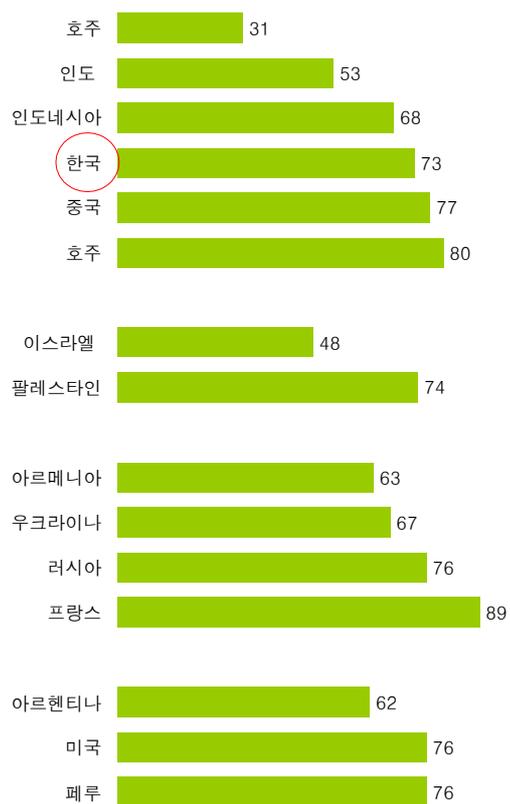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 지배질서의 해체를 주장하는 이념적 반미주의와는 궤를 달리한다. [표1]에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압도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평균 22.4%에 불과했다. 동시에 ‘미국이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을 철회해야 한다’ 입장 역시 평균 24%로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가(전체 15개국 응답자 56.3%)는 미국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나라와 함께 협력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유일의 패권국이 되는 것도 싫고 반대로 나몰라 하는 것도 우려하면서 일방주의적 힘의 정치 대신 협력적 리더십, 착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 등 21세기 최초의 두 개 전쟁을 주도했다. 전쟁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물리적 전쟁에서는 신속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하듯이 당사국 국민, 국제사회의 지지, 동맹국의 협력을 얻는 또 다른 전쟁에서는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부시행정부는 외교안보라인에서 네오콘 일부를 교체하거나 이란·북핵을 다루는 방식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한번 깊게 인식된 나쁜 이미지를 다시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제사회가 미국의 리더십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위안거리이다.

[그림1] 미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가?



[그림2] 미국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료 : EAI · CCGA(2007)

주1) [그림1] “부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합한 비율, “긍정”은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한 비율.

주2) [그림2]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비율

[표3] 미국이 세계에서 해야 할 역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서 국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문제를 해결해나 가야 한다	미국은 웬만하면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멕시코	12	59	22
미국	10	75	12
페루	10	61	22
아르헨티나	1	34	55
러시아	8	42	38
아르메니아	7	58	27
프랑스	3	75	21
우크라이나	3	52	34
이스라엘	24	62	10
팔레스타인	5	36	55
인도	34	42	10
필리핀	20	55	16
한국	14	79	6
중국	9	68	14
태국	8	47	18

자료 : EAI · CCGA(2007)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주제2. 실속 없는 한미관계

- 조사대상 11개국 중 10개국, 미국을 비판해도 미국과 관계 체감도는 양호
- 한국 국민, 현상유지 평가 대세 속에서 미국관계 나빠졌다 1위, 좋아졌다는 꼴찌
한국 제외 10개국 평균 : 양국관계 개선 37% > 악화 14%, 현상유지 34%
한미관계 : 개선 10% < 악화 34%, 현상유지 56%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 미국과 자기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12개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에서 개선되었다는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여론보다 많았다. 11개국가 응답 평균을 내보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고, 현상유지라는 의견이 3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여론은 14%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소위 중국위협론까지 날으며 갈등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중국이나 푸틴정부하에서 미국과 빈번하게 대립해 온 러시아 국민조차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여론을 상회했다. 미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미여론이 높은 중국 국민들은 무려 53%가 미중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것은 의외이다. 국민여론 감정적인 반감이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꾸준하게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일관된 전략을 추진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도 개선되었다는 여론이 28%로 악화되었다는 여론 20%보다 약간 많았다. 한편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여론 10%에 그쳐 조사대상 12개 국가 중 가장 낮았고, 나빠졌다는 여론은 34%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미국 국민이 본 주요국가와의 관계에서도 한미관계는 미-멕시코와 함께 대표적으로 나빠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국 국민은 미중관계는 30%가 개선되었고, 17%만이 나빠졌다고 보았다. 인도와의 관계도 미중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일관계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0%,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9%에 불과했다. 다만 멕시코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17%, 15%로 중국·인도·일본과의 관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의견은 반대로 앞의 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미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난 4년 간 많은 우여곡절 하에서도 주한미군 재배치·북한 핵문제·FTA 등 굵직한 외교현안에 대해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며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을 넘어 확장(expanding)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소한 양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낙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정부나 부시행정부 공히 자신의 국익을 위해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책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지는 몰라도 실속 없는 게임을 진행해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1] 11개국 국민이 본 [조사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평가

	개선	현상유지	악화
아르메니아	48	40	8
우크라이나	29	52	9
러시아	28	45	20
폴란드	25	60	8
이스라엘	32	52	12
인도	58	17	18
중국	53	27	15
호주	50	41	8
인도네시아	46	27	23
태국	37	10	28
한국	10	56	34

자료 : EAI · CCGA(2007)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표2] 미국 국민이 본 미국과 주요 국가와의 관계 평가

	개선	현상유지	악화
한-미관계	15	53	25
미-멕시코관계	17	38	39
미-EU관계	17	58	19
미-중관계	30	47	17
미-인도관계	30	48	16
미-일관계	30	55	9

자료 : EAI · CCGA(2007)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